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모의고사(1차) 문제지

인문계열 (120분)

학교명		학년 / 반	
번호		성 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60점, [문항 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3.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4.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5.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 문항 1 [60점]

[논제]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 두 방식 중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 하나를 선택해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 (1,000±100자)

< 다 음 >

조별 발표	**개별 발표**
조를 편성해 여럿이 힘을 합쳐 발표를 준비한다.	개개인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발표를 준비한다.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가) ~ (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할 것.
3.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혼자이면 외롭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그 힘은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산술적인 합보다 커질 수 있지만 그보다 못하거나 오히려 힘이 빠지는 상황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펼친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인다.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한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을 하곤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된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는 사람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최소한의 간격'이 고슴도치에게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고슴도치 사이의 '최소한의 간격'은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간격이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은 '예의'로써 서로 간의 거리를 적절히 지키고자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게다가 쇼펜하우어는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인간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상호의존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결혼, 우정, 부모-자식 관계 등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는 "혐오와 적대의 감정의 잔여물"이 존재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억압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일화를 인용한다. 프로이트의 많은 저서가 친밀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 수준의 친밀함인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친밀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인간이 어떻게 친밀함을 갈구함과 동시에 거부하는지 탐구한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대인관계에 대한 프로이트의 문제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은 고리타분한 말, 혹은 인공지능에 밀리기 시작한 바둑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말로 보인다. 그러나 궁합이 잘 맞는다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는 누구나 날카롭고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가 될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는 데 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는 속담은 ‘함함하다’라는 말 때문에 그 본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함함하다’가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는 뜻임을 떠올리게 되면 이 속담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나) 서양에서는 17-18세기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의 시민혁명 이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하였다. 개인이 단순히 집단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경우와 달리, 이제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진 인간은 자기 행위의 주체이자 책임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법적,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지닌 잠재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체제나 제도를 반대한다. 또, 인간의 이성을 무한히 신뢰하며 개인이 지닌 신념과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사상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개인주의는 인간중심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개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인간은 법과 도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둘째, 개인의 자립과 능력 발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 셋째,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과 목표 아래 자아의 발전과 가치를 드높인다는 것 등을 주요 지표로 설정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는 당대 예술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권(神權)의 영향이 막강했던 근대 이전의 예술가는 하나의 기술자 내지 직인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특정 시가(詩歌)나 음악적 지식, 종교 관련 회화와 조각에 대한 관심과 애호는 교양인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권장되었지만 이것들은 신의 경배나 종교적 윤리의 전파를 위한 계몽적·도구적 예술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근대예술은 신 중심의 예술 이념,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양식에 맞서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참된 자아의 개성,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 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

모네와 고흐가 소속된 19세기 후반의 인상주의는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독창성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굴하고 널리 전파한 예술사조로 유명하다. 그들은 신과 종교는 물론 계몽적 이성에 속박된 예술에서 벗어나 개인의 느낌과 그것의 자유로운 표현에 집중했다. 주어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그 대상에서 받는 순간적 인상과 미세한 변화를 대담하게 묘사했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대상에 고유하며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특성과 차이를 화폭에 가득 채웠으며, 이를 통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예술가 자신의 개성과 자율성을 주요한 미적 자산으로 확보하였다.

근대 이후 예술의 독창성과 예술가의 개성 추구, 표현의 자유 중시에 관련된 변화는 18세기 후반 ‘실학의 시대’를 맞은 조선 예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을 두루 포함하는 『춘향전』의 창작과 유통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창(唱)으로 공연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춘향전』은 지역과 가락의 차이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소리로 구분된다. 또한 소설 『춘향전』은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어느 지역에서 인쇄·출판되었는가에 따라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 남원고사본 등으로 나뉜다. 『춘향전』이 하나의 권위 있는 정본(正本) 없이 여러 종의 이본(異本)이 서로 경쟁하며 자유롭게 창작·공연·향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무엇보다 『춘향전』이 작가(화자)와 독자(청자)의 개성 표현과 취향 만족을 향해 널리 열려 있던 작품이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개성적인 이본끼리의 경쟁은 개개인의 예술적 능력과 그것의 미적인 발현이 곧 경쟁력이며, 독자의 획득이나 유행의 추세를 결정짓는 핵심적 원리임이 분명히 확인되는 지점이다.

– 고등학교 『문학』, 『윤리와 사상』 활용

(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협동학습의 중요성과 효율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협동학습이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지적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 이행되는 사고 확장의 바탕이 되고, 소속감과 자신감을 비롯한 긍정적 자아개념과 함께 동료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학습활동에서 협동학습의 구체적인 원리와 실행 후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체육에서의 단체 경기를 들 수 있다. 단체 경기는 축구나 농구와 같이 여러 명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같이 운동하는 것을 뜻한다. 단체 경기는 어느 한 선수가 잘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이 단체를 위해 공헌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다. 선수들의 이러한 협력과 응집의 결과로 팀워크, 사회적 기술과 그것의 융합, 그리고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해주는 장점 등이 발생한다.

단체경기의 핵심적 역량 가운데 하나인 응집력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응집력이란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역동적이며 긍정적인 형태로 단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팀워크, 팀 결속력, 팀 정신 등이 응집력을 대신하는 말이다. 단체경기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결속력이 높아야 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응집력이 높은 팀이 성공률도 높다. 예를 들면 월드컵대회나 프로 경기에서 뛰어난 선수가 많은 팀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팀과의 경기에서 패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이런 결과는 개인의 능력을 앞세운 탓에 발생하는 응집력의 약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응집력은 과제 응집력과 사회적 응집력으로 분류된다. 먼저 과제 응집력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팀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를 말한다. 구성원들이 과제 수행의 방법과 목표, 결과 등을 공유할 때 팀을 위한 협력과 노력은 더욱 강화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응집력은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를 말한다. 친밀도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발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예컨대 단체경기나 협동학습 과정에서 "우리 팀이 뭉치면 어느 팀보다 강해"라든지 "내 파트너는 최고의 실력자야" 하는 등의 동료에 대한 신뢰감은 팀의 응집력을 증가시켜 서로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응집력의 결정 요인으로는 협동과 안정성과 동질성을 꼽을 수 있다. 협동이 잘 이루어져야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과제 수행의 효과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안정성은 지도자와 팀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의미한다. 과제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잘 수행하여, 서로의 역할과 임무를 적절히 분배, 조절하며,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동질성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며 소속감을 뜻한다. 이것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 목표 달성 등에 관련된 공통의 생각과 실천력과 관계된다.

– 고등학교『스포츠 과학』활용

(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2017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고 있고 2년 뒤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 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줄 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30 세대에서 방은 따로 쓰되 주방과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셰어하우스가 유행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재미도 있습니다."라는 게 매력이다. 1인 가구의 식사 또한 '혼밥'만 있는 게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만나 같이 식사하는 이른바 '소셜다이닝'은 1인 가구 사이에서 인기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새롭죠. 또 음식을 혼자 먹을 수 없는 경우 같이 가서 먹을 수도 있고."라는 게 인기의 비결이다.

왜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원할까?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고립되어 자란 아이나, 야생 상태에서 자란 아이는 모습만 인간일 뿐 인간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데에는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것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형성한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 못지않게 중요해진 요즈음, 현실 속에서 직접 몸과 몸으로 부딪치는 만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사회화된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은 현실 세계를 멀리하고 사이버 공간에 빠지는 중독 현상, 현실 속에서의 활동을 기피하고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현상, 사이버 자아와 현실의 자아를 혼동하거나 왜곡하는 정체성의 혼란 등 사이버 공간 속 활동의 폐해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 맘에 안 들면 지금까지 벌여 놓은 일이나 인간관계 등을 쉽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리셋 증후군'도 그 중 하나이다. 손쉬운 방식만을 택한다면 협동, 경쟁, 갈등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된다.

서로 협력함으로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 내거나 일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그 대표적 예이다.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함께 집밥을 먹고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아이를 같이 키우고 일자리를 나누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반세기 전 간디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공동체적 삶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샌델(Sandel)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공동체를 보게 되면,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의 성취마저도 다른 구성원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따라서 각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 완전한 독립적인 자아로 볼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내가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참여했으므로 [...] 우리는 처음부터 상호 간에 빚을 졌으며 도덕적으로 연관된 존재로 볼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 고등학교『사회·문화』,『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사회』활용

(마) '팀플'은 대학교 정규수업의 '조별 과제' 혹은 '조별 발표'를 일컫는, '팀 프로젝트' 혹은 '팀 프레젠테이션'의 줄임말이다. 팀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도입된 뒤 대학에서도 대표적인 수업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유명 대학의 MBA(경영전문대학원)에서 팀플을 통한 실습 과정이 유행하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우리나라 교수들이 미국에서 경험한 이런 수업 방식을 앞다퉈 도입했다. 요즘 팀플은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보편적 수업 방식이 됐다.

팀플은 '여러 학생이 협력해 하나의 결과물을 창조하는 행위'로서, 흠잡을 데 없는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장 매혹적이지만 실제로 가장 파괴적인 공산주의를 연상케 하듯, 팀플은 애초 취지와 달리 교과수업의 파행과 교우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적당히 수업을 때우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는 방편'으로 팀플을 남용하고, 학생들은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떠안는다.

상당수 팀플은 '배 째라'식 무임승차를 방임한다. 천우신조로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조원들로 팀이 구성되지 않는 한, 팀 내에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재학생 A는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그중에 가장 절박한 조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다른 조원은 두루미처럼 고고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얹혀서 가기도 한다."고 전한다.

이처럼 조원들 간의 기여도가 현저히 다른데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되니 팀플만큼 불합리한 게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공산주의에서 강조하는 '성과를 똑같이 나눠 갖는 방식'과 유사하다. 재학생 B씨는 "열심히 한 소수 덕에 나태한 다수가 혜택을 입거나, 나태한 다수의 태업으로 열심히 한 소수가 피해를 보는 레퍼토리가 늘 반복된다."고 했다.

재학생 C에 따르면, 팀플로 인해 조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C씨는 "같은 과의 한 조원이 과제와 동떨어진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과제물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때 정나미가 떨어져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조원과 알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재학생 D는 "한 조원이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제를 진행했다가 신통치 않은 평가가 나왔다. 그 조원에게 다른 조원들의 원망이 집중됐다"고 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모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하는 팀플 따위로 징징대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며 반론을 편다. "사회생활이야말로 팀플의 연속 아니냐. 월급쟁이 대부분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단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니 팀플을 통해 세상사는 지혜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에선 단체 업무를 하면 자신의 기여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대가를 지급받는다. 또, 직장에선 자기 일을 태만히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 문항 2 [4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5개의 <자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음>의 1) ~ 3)에 대해 서술하시오. (700±100자)

< 다 음 >

2012년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0~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일본(1.42명)이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쓰는 중국(1.56명)보다 낮다고 한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인구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 사회'가 될 전망이다.

1)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2) 위 1)에서 밝힌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1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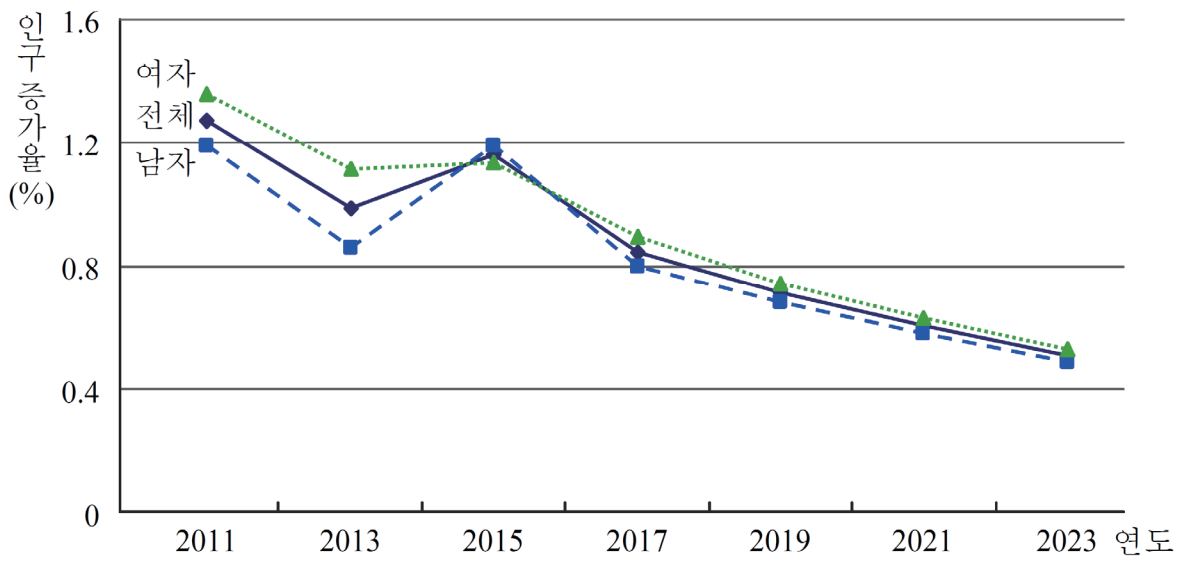
3) 2009년과 2015년 사이 고용률 상승에 대한 연령대별 기여도[주3)]를 설명하시오. (15점)

주1. 제시된 자료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주2. 장기간의 경향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미래 시기의 추정치도 자료에 포함함.
주3. 기여도란 구성요소의 변동이 전체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말함.

고등학교『사회』활용

< 자 료 >

<자료 1> 인구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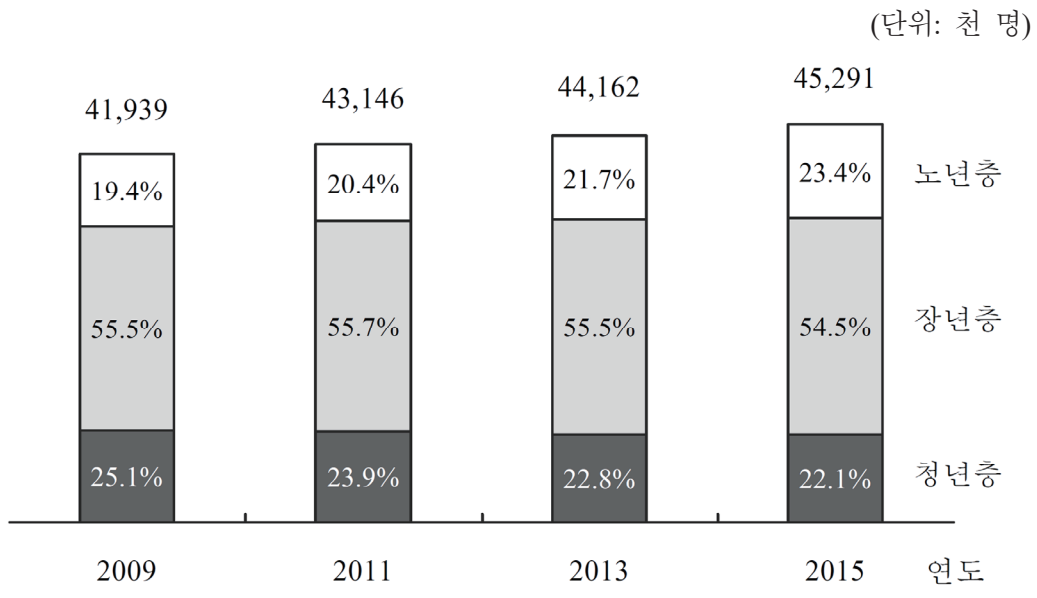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자료 2> 출생 및 사망자 추이

연도	출생		사망	
	출생아 수 (천 명)	출생률 (명 / 천 명)	사망자 수 (천 명)	사망률 (명 / 천 명)
2015	427	8.4	277	5.4
2017	413	8.0	296	5.7
2019	410	7.9	314	6.1
2021	410	7.9	334	6.4
2023	413	7.9	353	6.7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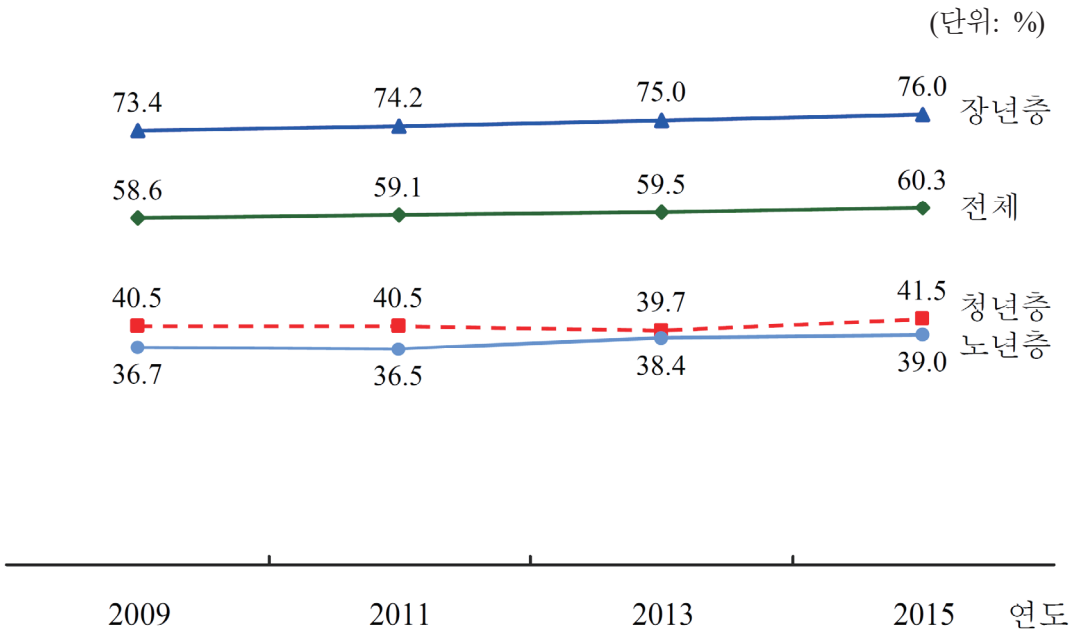
<자료 3> 15세 이상 인구 및 연령대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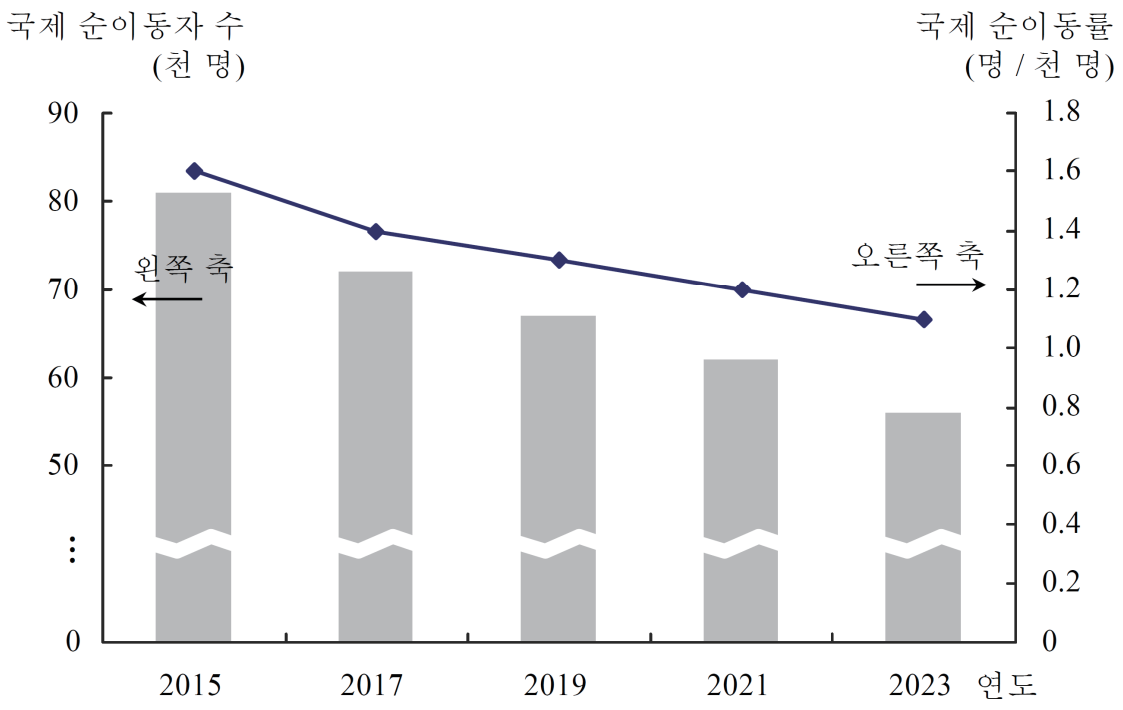
주1. 청년층 15~29세, 장년층 30~59세, 노년층 60세 이상

<자료 4>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주1. 전체 고용률 = (전체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주2. 연령대별 고용률 = (연령대별 취업자 ÷ 연령대별 인구) × 100
주3. 청년층 15~29세, 장년층 30~59세, 노년층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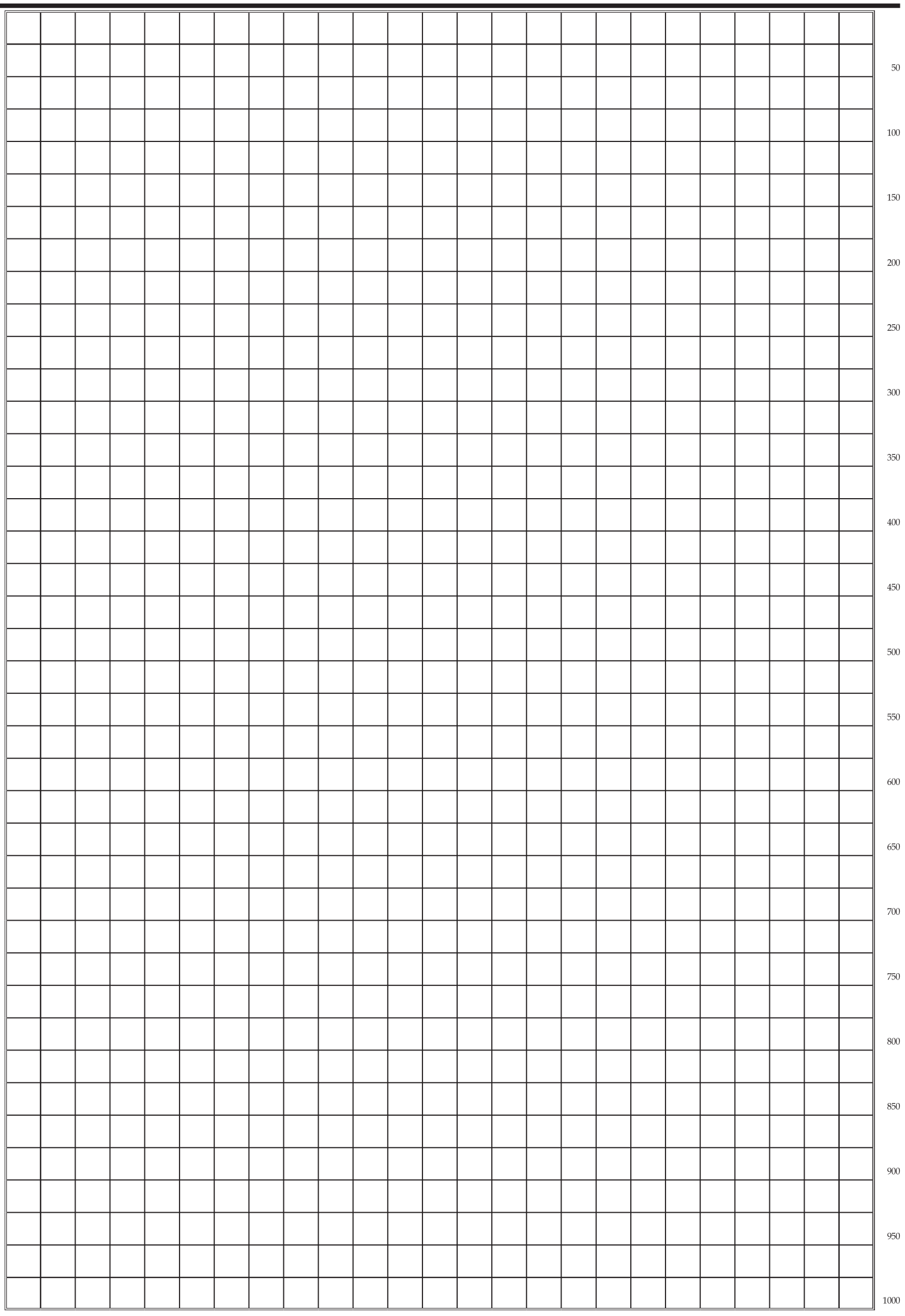
<자료 5> 우리나라 인구의 국제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주1. 국제 순이동자 = 입국자 - 출국자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